

##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SSENTIAL

꽃 피고 봄 오면 지음

유의사항

- 1) 2022 수능, 2023 6월 및 9월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'예측'입니다. 적중 가능성이 높으나, 어디까지나 예측이므로 참고해서 유동적으로 자료 활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- 2) 제 게시물에 있는 파이널 모의평가와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수능 직전에 풀어보기 좋은 난이도로 평가원의 문항 출제 원칙과 형식을 지켜 출제하였으니 꼭 한 번 풀어보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### 1. 윤리학의 분류

- 실천 윤리학 + 비규범 윤리학(메타, 기술)의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비판 유형(내가 보기에 이 사상가는~)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### 2. 동양 윤리 사상

- 유교와 도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유교의 오답으로는 도가와 묵자가, 도가의 오답으로는 유교, 유교와 도가의 공통 오답 선지로는 불교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### 3. 서양 윤리 사상

- 칸트와 벤담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나, 칸트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.
-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때 난이도는 매우 쉬워집니다.

### 4. 삶과 죽음의 윤리

-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동양의 삶과 죽음의 윤리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. 유교와 도가를 앞부분에 출제한다면 여기서는 불교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### 5. 성과 사랑의 윤리

-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출제 가능한 유형으로는 갑, 을로 묻는 유형 혹은 X,Y,Z로 묻는 유형, 그리고 토론이 있습니다.

### 6. 생명 윤리

- 배아와 관련된 문항이 6월 및 9월에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서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.
- 출제 가능한 유형으로는 (가), (나)의 입장을 묻는 유형, 토론, X,Y,Z로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.

### 7. 직업과 청렴의 윤리

- 정약용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(6,9월 모두 정약용 출제)
- 직업 윤리에서 출제된다면 아마 맹자와 순자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.

## 8. 분배 정의

- 롤스 노직이 거의 100% 출제된다고 봅니다.
- 사상가가 3명 나올 경우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마르크스와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, 롤스 노직 이렇게 2명만 출제해서 충분히 변별력이 있기에 굳이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
- 롤스 노직 대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과거 평가원 롤스 노직 **제시문** 읽어보기
2. EBS 연계교재 반드시 확인하기

## 9. 사형

- 칸트, 벤담, 베카리아의 세트로 나오거나 칸트, 루소, 베카리아의 세트로 출제됩니다.
- 6, 9월 모두 칸트, 벤담, 베카리아로 출제되었습니다. 그런데 루소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

## 10. 국가와 시민의 윤리

- 아리스토텔레스, 홉스, 로크의 형태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.
- 루소도 출제될 수 있기는 하나, 위에 제시한 3명의 사상가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
- 개인적 견해로는 윤리와 사상의 '사회 계약론' 문항을 풀어볼 필요까지는 없으나, EBS 연계교재에 있는 심화 개념정도는 익히고 들어가는게 좋아보입니다.

## 11. 시민 불복종

- 롤스, 싱어로 출제되거나 롤스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6,9월 모두 시민 불복종 파트의 난이도가 높아서, 오히려 수능에서 난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롤스, 싱어가 함께 출제될 것 같기는 합니다.

## 12. 과학 기술과 윤리

- 요나스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.
- EBS 및 기출 문항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.
- 비호혜성, 공포, 책임 주체 및 대상, 책임 능력 및 책임 의무 등의 개념이 중요합니다.

## 13. 정보 사회와 윤리

- 칼럼으로 출제됩니다.

## 14. 자연과 윤리

- 칸트, 레건, 레오폴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6월과 9월 시험지를 합쳐서 보면 칸트, 싱어, 레건, 테일러, 레오폴드가 모두 출제되어서, 사실 어떤 사상가든 출제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
- EBS 연계교재 **제시문** 꼭 봐주세요

#### 15. 예술과 윤리

- 플라톤과 칸트가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짝수 해(2020,2022학년도)의 경우에는 동양에서, 홀수 해(2019,2021)의 경우에는 서양에서 출제되었습니다.
- 이번에는 6월은 공자, 9월은 플라톤에서 둘 다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.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.

#### 16. 의식주

- 6월 9월 모두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. (유행 소비 - 과시 소비)
-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아마 베블린 효과에 대해 강연자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#### 17. 문화와 다문화 사회... 등등

- 출제 가능한 사상가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) 엘레아데
  - 2) 불노브
  - 3) 용광로, 셸러드, 국수 대접
- 저는 여기에서 1,2중 하나 그리고 3번이 출제될 것이라고 봅니다.

#### 18. 통일 및 화합 파트

- 여기서는 1개 혹은 2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.
  - 1) 하버마스
  - 2) 통일 관련 쉬운 문항
- 하버마스는 6월 출제, 9월 미출제. 통일은 6월 미출제 9월 출제라서, 이 중 1개가 나올 것 같기는 하나 둘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.

#### 19. 국제 관계

- 현실주의와 칸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이상주의와 갈통도 공부해두기는 합시다.

#### 20. 해외 원조

- 롤스, 싱어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.
- 작년 수능에 노직이 나와서 올해 출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